

표 넘어 세계적 백신산업 거점으로 비상 꿈꾸는 화순

“신(新)경제 지도 밑그림 완성... 차세대 백신산업 선도하겠다”

화순 국화향연 관람객 61만 ‘대박’... “관광객 500만 시대 준비”

세대연대 정책·생활SOC 전략적 연계... 더불어 행복한 화순공동체

화순군이 대한민국 차세대 백신산업과 생물의약품산업 거점도시로 비상을 꿈꾸고 있다.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인 화순은 지난 2010년 정부가 생물의약품산업단지화 화순전남대병원 일대를 우리나라 유일의 ‘백신산업특구’로 지정하면서 백신산업의 거점으로 변모해 왔다. 민선 7기 들어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발판 삼아 ‘화순-나주-장흥’을 잇는 ‘생물의약품벨트’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백신·생물의약품·첨단복합의료산업이 선도하는 ‘신(新)경제 1번지 화순’을 만들겠다는 구충곤(60·사진) 화순군수의 미래 비전과 궤를 같이한다. 구충곤 군수는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민선 6기에 마련한 ‘새로운 성장판’을 발판 삼아 생물의약품벨트를 구축해 백신산업특구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 차세대 백신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구 군수는 “우리 지역의 풍부한 자연·산림·역사·문화를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융·복합 기술 등을 적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객 500만 시대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구 군수에게 신경제 지도 밑그림과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관광객 500만 시대 구상, 세대연대 정책과 연계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 등 주요 군정 계획을 들었다.



지도를 그리기 위한 핵심이다. 생물의약품벨트를 구축해, 우리나라 생물의약품산업의 고도화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확충해 백신산업특구의 국제 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다.

■ 생물의약품벨트 구축이 핵심인 것 같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 전남도와 관계 지자체와 함께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생물의약품벨트를 어떻게 구축할지, 청사진을 마련했다.

국비가 수반돼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나 확정적으로 밝히기 어렵다. 다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산업벨트 구축 사업 12개 중 5개 중점사업, 1개 전략사업을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 군은 6개 사업 중 국가 면역치료 혁신플랫폼 구축(사업비 460억)과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180억)에 역점을 두고 있다. 차세대 백신산업과 생물의약품 선도도에 필요한 핵심 시설이다. 산업벨트 이외에도 백신산업특구 활성화에 필요한 국제 기관 유치에 힘쓰고 있다.



■ 군정 비전이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이다. 이를 실현할 군정 방향은 무엇인가.

- 더 따뜻한 복지공동체, ‘행복 1번지 화순’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화순의 든든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 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일이다. 백신산업과 생물의약품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해 풀어야 할 과제다. 두 번째는 군민 그 누구도 소외 없이, 골고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사회안전망 등 기반을 촘촘하게, 튼튼하게 다지는 일이다.

■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일, 그 비전으로 ‘신(新)경제 1번지 화순’을 표방하고 있다. 실현 전략이 궁금하다.

- ‘신(新)경제 지도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민선 7기의 목표 중 하나다. 든든한 미래 먹거리가 될 백신과 생물의약품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국내외 생물·의약 기업을 유치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자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 지역의 전통 산업인 농업의 경쟁력을 더욱더 키우고 문화관광 산업을 활성화해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중심의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리겠다는 구상이다. ‘생물의약품·첨단복합의료산업-농축산업-문화관광 산업’을 화순의 3대 산업 발전 축으로 삼아 새로운 경제 지도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전략이다.

도시권인 화순읍의 백신·생물의약품·첨단복합의료산업, 농촌 지역의 고부가 가치 농업을 육성하고 도농 지역을 연계한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도농 간, 산업 간 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신경제 지도의 구상이다. 생물의약품벨트 구축이 신경제



객 500만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관광 분야의 비전으로 제시한 ‘사시사철 누구나 즐겨 찾는 역사문화기행 1번지’로서 입지를 다지는 일을 차근차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 구체적인 계획을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

- 세계거석테마파크, 고대역사문화정원 조성, 고인돌 캠핑장 개장, 동아시아 고인돌연구센터 설립, 화순적벽 관광 명소화를 위한 기반 확충에 힘쓰고 있다. 산림자원, 문화유산, 첨단의료복합 서비스, 농촌관광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여건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중국의 3대 음악가 정음성 전시관 건립과 주자묘 관광 자원화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나서고, 산악 레저스포츠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행과 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마케팅, 관광 브랜드(로컬 브랜드) 구축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구슬이라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꿰어서 보배로 만드는 일을 전담할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검토 중이다. 구슬을 꿰는 일이 콘텐츠 개발이다.

■ 지금까지 미래 먹거리에 관한 구상을 밝혔다. ‘행복 1번지 화순’ 실현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복지정책을 간략히 소개해 달라.

- 미래 먹거리와 함께 중요한 것이 군민 누구나 기본권을 보장받고 평균 이상의 삶의 질을 영위하는 것이다. 복지정책의 비전은 ‘내 삶을 책임지는 완전복지’다.

영·유아에서 고령층까지, 여성·장애인·다문화가족, 농촌에서 도시까지 어느 한 나이·계층·성별·지역도 소외 없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지이자 비전이 담겨 있다. 아동청소년·여성가족·고령 3대 친화도시 조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육아·교육 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복지·일자리·보육·돌봄 서비스 확대 등을 대표 정책으로 꼽을 수 있다. 3대 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복지·일자리·보육·돌봄 서비스 등 복합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고령화, 인구절벽 등을 극복하는 데도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 화순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추진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우리 군은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 사업을 신청해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됐다. 세대연대복합센터에는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마을혁신지원센터, 여성프라자(엄마의 학교), 주거주거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비 61억 원을 확보했다.

또,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장애인복지관, 노인회관, 통합일자리교육센터, 평생학습센터도 같은 공간에 설립한다. 2개 동을 건물로 지어 연결할 계획인데, 전체적으로 12개 시설을 복합화한 거점



공간이다.

■ 상당히 많은 시설을 복합화한 것 같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 최근 우리 군이 연구해 개발한 의제가 ‘세대연대 다. 세대연대 정책의 실행 플랫폼(거점 공간)이 세대연대복합센터다. 급속한 산업화, 심화하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사회 양극화와 갈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세대연대는 고령화와 세대갈등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에 초점을 맞춘 의제다. 특정 세대(주로 고령층)를 시혜나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에이지 케어(Age Care) 정책과 소극적인 세대통합 정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지방정부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앞서 소개한 3대 친화도시 조성 등 복지정책과도 연결된다.

세대연대뿐 아니라 복합 정책과제를 실행하는 공간이고, 정책을 통합한 공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설을 복합화한 것이다.

■ 세대연대복합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

- 세대연대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행할 거점 공간이다. 생활SOC 사업은 행정의 필요에 따라 단순히 여러 공간이나 건축물을 ‘한곳에 모아 통합’한 건물을 짓거나 공공건물을 재배치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 우리 군은 세대연대 거점 공간 구축과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것이다. 단순히 필요한 건물을 합친 것이 아니라, ‘복합 정책 과제’를 추진하는 공간의 복합화이자 정책을 실행하는 거점 공간이다.

모든 세대와 계층이 교류·소통·연대하면서 복지·돌봄의 공급자이자 수요자로서, 주체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세대연대)이 필요하고, 이를 실행할 플랫폼이 세대연대복합센터다. 말하자면, 세대연대복합센터는 화순이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의제(세대연대)이고 화순형 생활SOC 복합화 전략의 브랜드다.

■ 거점 공간 구축만큼이나 운영도 중요한 것 같다.

- 물론이다. 핵심은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공동체 활성화다. 세대연대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 세대연대복합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건물 수십동을 지어 올려도 달라질 것이 없다. 그래서 관이 기획하고 주도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참여하고 주도하는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구상 중 하나가 세대연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참여하는 세대연대위원회가 세대연대 정책을 추진하고 센터가 제 기능을 하도록 운영하는 핵심적인 기구가 될 것이다. 주민들이 더 편하게 문화와 복지 서비스를 누리는 동시에 지역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발전소’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 ‘주민이 주도하는 세대연대 1번지 화순’을 만들겠다.

화순=박순철 기자